

미국, 연구개발 예산 1225억달러

방위 관련예산 7.2% 확대 ... 물리화학 · 나노기술 연구 중점 추진

미국의 2004년 연구개발 예산이 약 1225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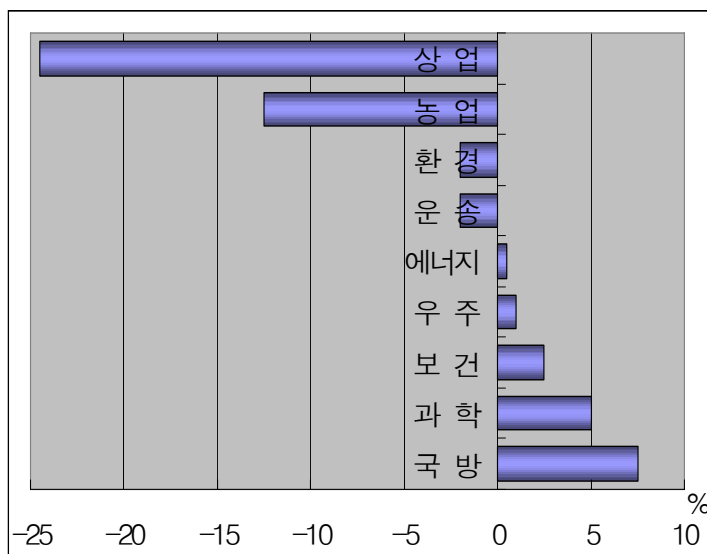
방위관계에 675억달러, 일반 연구개발에 550억달러를 할당해 2003년 소화한 예산과 비교할 때 방위 관계는 7.2%, 일반 연구개발은 1.2% 증가했다.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나 자본투자 45억달러를 제외하고 연구개발의 경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테러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부분으로 1.5배 증가했다. 또 주택·도시개발이 8.5%, NIH는 7.0% 증가했으며 Smithsonian도 5.2%, 에너지 관련이 5.1% 늘어났다.

NIST는 24.1%, 사회보장 20.5%, 방위관련 과학기술 기초연구소 8.3%, 농업관련 11.7%로 감소했다. 환경보호 관련예산도 5.7% 줄었다. 다만, 탐색연구와 개발연구 사이에서는 같은 범주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상무성과 관련해 NOAA는 1.4%, NIST는 24.1% 감소했기 때문에 상무성 전체적으로는 11.9% 감소했다. NIST의 기초연구는 NOAA보다 크게 늘어 36.6% 증가했으나 NIST의 응용연구는 NOAA에 비해 크게 감축돼 18.3% 줄었다.

미국의 R&D 예산 요구액 증감률(2004)



미국의 대통령부(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는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라는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1976년 의회에 의해 설립돼 미국 내외의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1976년 법령(Public Law94-282)에 의해 부처간 과학기술 정책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 시킨다는 임무를 정해 예산배분, 민간, 주, 지방행정, 과학단체, 고등교육현장, 외국과의 조정을 맡고 있다.

화학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에는 기술혁신, 물리과학,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를 비롯해 NITRD(Networking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테러와의 전쟁, 기후변화, k-12 수학과 과학교육이 포함돼 있다.

<화학저널 2004/08/24>